

은평성모병원, 환자 맞춤 스마트 병원 선도

최고의 병원을 넘어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좋은 병원' 지향

808병상을 갖춘 최첨단 병원... '기다림 없는 병원' 표방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내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 5월 15일 공식 개원했다.

가톨릭 의료 84년의 역사, 국내 최대 의료 네트워크의 역량을 결집한 은평성모병원은 지상 17층, 지하 7층 규모로 808병상을 갖춘 최첨단 병원으로 환자 중심 협진 체계와 중증환자 신속 진료체계를 갖춘 '기다림 없는 병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은평성모병원이 이미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료를 시작했다.

약 3년여 개원 준비 기간 동안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진료 프로세스 구축에 매진해 다학제 협진, 원데이.원스탑 진료, 중증환자 신속 진료 시스템을 구현해 냈다.

병상 간격 1.5미터의 넓고 쾌적한 4인실이 전체 병상의 93%를 차지하고, 전 병원에 낙상 방지를 위한 최고급 저상 전동침대를 도입했다. 입원의 학과 전문의가 입원 환자를 돌보고, 간호와 간병을 통합해 보호자 없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고령 환자를 위한 맞춤 진료,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공간 디자인, 장애물 없는 병원을 지향한다. 현재까지 제시된 국내외 감염관리 기준을 완벽에 가깝게 충족하는 '설계부터 안전한 병원', 국내외 최신 기종을 포함한 약 1,700억 원대 규모의 '의료 장비 및 전산 시스템 총망라', 국내 최대 규모의 환자를 위한 친환경 힐링 공간 '치유의 숲', 그리고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의사와 함께 회진하는 미래 병원을 구현했다.

진료 특화

심장혈관병원 및 혈액병원과 뇌신경센터, 소화기센터, 안센터, 척추·관절·통증·류마티스센터, 당뇨

병·갑상선센터, 장기이식센터, 유방센터, 호흡기센터, 응급의료센터 등 12개의 다학제 협진 센터 그리고 39개의 진료과로 구성되어 있다.

다학제 협진 센터에서는 개별 임상과 중심의 진료 시스템에서 벗어나 환자를 위해 여러 전문의가 통합 진료하는 환자 중심의 질환별 치료를 함으로써 최적의 치료 방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다. 위, 대장, 간 등 소화기 질환, 흉통, 뇌졸중, 자궁근종, 갑상선 등 약 60여개 진료 분야에서 당일 접수, 진료,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한 '원데이.원스탑' 진료 시스템을 구현 했다.

3대 중증 응급 환자(급성 심근경색, 급성 뇌졸중, 중증외상환자)에게는 신속 진료 시스템(Fast Track System)을 통해 최우선으로 집중 치료를 실시한다. 응급의료센터와 뇌신경센터, 심장혈관병원이 한 공간에 집결해 있으며, 응급의료센터에는 전문의가 356일 24시간 상주하고 뇌졸중, 심근경색 환자를 위한 전문 의료진이 상시 대기해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24시간 가동된다.

약 50여년간 축적된 이식 역량을 은평성모병원에서 구현하고자 조혈모세포, 간, 각막, 소장, 신장, 췌장, 심장, 폐 이식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역동적인 의료진이 환자 중심의 다학제적 협진을 선보인다.

최첨단 장비

약 1,700억대 규모로 현재까지 출시된 가장 최신 버전의 첨단 의료 장비 및 전산 시스템 등이 완비되었다. 꿈의 암 치료기라 불리는 트루빔(True beam)은 가장 정밀하고 섬세한 치료가 가능한 방사선 암 치료기로 뇌종양 및 두경부 치료에 특히 강점이 있으며, 정상조직의 피폭을 최소화해 부작용이 적다. 최신 Digital PET-CT는 기존 장비



(4mm 단위의 영상 가공) 보다 더욱 세밀한 3.2mm 단위의 촬영으로 작은 병변의 정확한 영상을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구현한다. 최신 MRI Magnetom Vida는 환자의 움직임을 보정해 주는 첨단 기능을 탑재해 검사 중 숨을 참기 어렵거나 움직임이 많은 환자들로부터도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세대 로봇 수술기 다빈치 Xi(Da Vinci Xi)는 최신 버전의 로봇 수술기로 기존보다 더욱 길고 가는 로봇 팔이 더 넓은 반경으로 움직여 정교한 수술, 흉터 최소화, 수술 후 빠른 회복을 돕는다.

3D 전신 X-Ray 촬영기 EOS는 세계 최저 선량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전신 X-Ray 촬영이 가능하다. 몸무게가 실린 뼈의 사진은 정확한 진단

과 수술 계획 수립에 유용하다.

진료 환경

로봇 수술실,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포함해 총 19개의 수술실을 구성했다. 수술실 전체에 최고급 영상 화질(4K·4K)을 구현하는 모니터를 설치하고, 미세 혈관 수술에 활용하는 최신 수술 현미경 등을 마련했다. 하이브리드 수술실에는 고성능 혈관 조영 시스템을 구축해 외과적 수술과 혈관중재시술이 동시에 가능하다. 급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 별도의 CT촬영 없이 원스탑으로 수술실에서 진단과 수술, 혈관조영 시술이 가능한 인프라를 완비했다. 정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책을 거의 완벽한 수

준으로 설계부터 반영하고 건축한 병원으로써 응급의료센터, 외래, 병동 등에서 원내 감염이 원천적으로 통제된다. 국내 최대 의료 네트워크에 기반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 병원으로서 음성인식 시스템(Voice EMR), 회진·안내 로봇, 중앙 판독 시스템, 3D프린팅 연구소 설립 등 미래의 의료 환경을 구현한다. 세계 최초로 회진 및 안내 로봇을 개발하여 임상에 적용한다. 의료진의 회진 시 동행하여 환자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진의 음성을 인식해 실시간으로 의무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환자 카드를 로봇에 스캔하면 환자의 진료 및 검사 안내를 비롯해 수납까지 가능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한다.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

은평성모병원은 서울성모병원에 이어 로마 교황청

의 승인을 받은 2번째 병원이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아닌 생명 존중의 전인 치료를 실시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소외된 이웃을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돌보는 가톨릭 영성 구현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22병상으로 구성된 호스피스 병동은 생명 존중의 전인 치료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다.

최북단에 위치한 대학병원(개성까지 38Km)이라는 입지적 장점과 국내외 의료 지원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대를 여는 대북 보건의료 거점 병원으로 역할도 기대된다.

권순용 은평성모병원장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병원으로서 지역과 상생하는 가운데 단순한 일등이 아닌 일류를 지향하는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좋은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P저널

▼ 첫 진료 환자 종합건강검진권-권순용 원장

